

환경

과학포경 추진... 말바꾼 정부에 환경단체 반발

정부, "공식 포기한 적 없다" 고래잡이 계획서 제출 검토
환경단체, 반대 서명운동... 그린피스 철회 촉구 캠페인

정부가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던 과학조사 목적의 고래잡이(포경·捕鯨)를 계속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IWC는 과학포경 계획서를 과학위원회 회개 회개 6개월 전에 내도록 하고 있다. 내년 과학위원회가 6월3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3일이 마감일이다.

의에서 한국이 과학포경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자 "포경 없이 조사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면 과학포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시 국제 사회는 한국이 포경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했고, 세계의 언론들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 포경선이 고래를 잡고 있는 모습. <그린피스 제공>

획서 제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다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과학포경 공식 철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까지 107개 나라

에서 8만여 명이 참여했다. 한정의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며 "포경계획서를 낼 경우 철회를 더 더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필뉴스

광주·전남 환경이슈 <13>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개발'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게 됐다. 결국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오늘날 개발은 보전과 상충되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공사 설치 사업'은 터널을 개설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협의·조정할 바 있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찾아야 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상당하는 제도로서 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갈등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보전과 개발의 논리 사이에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낭비 비용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밖에 없다. 생태자연도 I·II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에 도로 개설이 계획된 '모후산 강우레터' 기지 설치 사업은 자연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조정 하였다.

위단계의 정책, 행정계획(101개) 등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환경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사업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사업자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을 보전하려는 의식이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면 사업 초기에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풍부한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도시와 연안 갯벌이 잘 발달된 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도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문구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계장>

'꿈 전도사' 김수영 초청, 오늘 그린아카데미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8일 오후 2시30분 1층 대강당에서 꿈 전도사 김수영 작가(사진)를 초청 '제8회 그린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김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꿈 만나다, 나누다. 이루어지'라는 주제로 청중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각자의 꿈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문예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꿈 전도사로 알려졌다.



강연에 앞서서는 지역 출신 재즈밴드인 '세븐아일즈'가 문화나눔 공연을 펼친다. 한편 그린아카데미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한 차례 환경·인문·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초청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살리기 사업, 수질개선 효과 없다"

박철홍 도의원, 오폐수시설 없이 보 설치 급급... 광산·나주 악화

4대 강 사업중 하나인 추진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철홍(당야1·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주변 소하천 등의 오폐수 처리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의 수질개선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수처리시설 사업비는 국비 30%, 지자체 70%가 투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에 손을 얹고 있다. 실제로 영산강의 시원(始原)인 담양군은 영산강 상류오염 예방을 위해 최소 19곳의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지만 5곳에 그치고 있다. 140억원의 사업비 중 1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질오염을 측정할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수질이 다소 나빠 개선됐지만 광산과 나주 등 중상류 지역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 노안 학산교 일대는 지난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지난해 5.9ppm에서 올해는 6.2ppm으로 악화됐다. 박 의원은 "오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보를 만든다고하면 수질개선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내일, 광주시 대기질 개선 토론회

광주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 건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열린다. 공당 담당관 김상봉(당야1·민주통합당)은 "대기질 개선 토론회는 민관협력과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광주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의견을 수렴해 실현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사제로 보는 시민참여 대기개선 활동에 따른 대기정책 성과(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광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오진명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담당관) ▲대기질개선 시민인식조사 및 승용차 5부제 조사결과 발표(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대기

질조사결과 발표(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광주시 관내 방사선 측정결과 발표(박상은 핵안전·세상광주전남행동 사무국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경로선과 일반 시민 조사원 등이 자유 토론을 한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의 대기질은 양호한 편이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지방기상서비스' 공무원 연구모임 국무총리상 생활밀착형 기상서비스 높은 평가

광주지방기상청 '호남지방 녹색기상서비스연구회'(회장 유근기 예보과장)가 지난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2년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 연구회는 그동안 외부소통을 위해 국민편익을 위한 생활기상지수(벡델미지수, 갯벌지수 등)를 제공하고 기상정보 활용정보지 발간, 어린이 날씨공모전, 기상포터즈 운영 등 지역특색에 맞는 '생활밀착형 기상서비스'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수를 받았다. 광주기상청 예보과 연구모임인 호남지방기상서비스연구회는 지난 2006년 6월 만들어졌으며 직원 18명과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근기 예보과장은 "연구모임을 통해 앞으로도 외부소통을 위한 생활밀착형 기상정보를 개발해 국민이 날씨를 즐기고 생활에 활용하는 기상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매수신용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주택, 단골주택, 공장, 토지매매, 문의의 010-4911-4989

현대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토지구합, 토지매매, 토지매도, 시외매도물건, 사무주요지 토지매매

금당 공인중개사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 건물매도, 내대지, 사무주요지 토지매매, 사무주요지 토지매매, 사무주요지 토지매매

신한공인중개사

신한공인중개사. ★신속원론 매매전문★, ★수완지구 상가 분양·임대중 특별할인★, ★사무주요지 토지매매·교환·개발등 전문★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주요지 상가건물, 사무주요지 상가 분양·임대중 특별할인, 사무주요지 토지매매·교환·개발등 전문

사무주요지공인중개사

사무주요지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사무주요지 상가건물, 사무주요지 상가 분양·임대중 특별할인, 사무주요지 토지매매·교환·개발등 전문

대인동삼일부동산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사무주요지 상가건물, 사무주요지 상가 분양·임대중 특별할인, 사무주요지 토지매매·교환·개발등 전문